

조우석 KBS 이사 사퇴 촉구 서명운동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 “인권보도준칙 무시해도 된다”

조우석 KBS 이사의 발언들이다. 그는 지난 10월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럽다”고 모욕했고,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하며 마녀사냥을 벌였다. 그는 성소수자들을 ‘교회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이들, ‘음모의 덩어리’, ‘현실적 위험요인’ 등으로 지칭하며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HIV/AIDS 감염인이 ‘혈세를 막 먹으려고’ 한다면 공격했다. 조우석의 발언은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 차별 선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조우석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반민주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조우석의 언행은 이러한 방송법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라면 조우석을 해임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공연히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이러한 반인권 인사는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우석 KBS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번호	이름	주소	남기고 싶은 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재단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서명지는 이메일(lgbtaction@gmail.com)또는 팩스(02-334-9984)로 취합해 주십시오.